

미래세대를 위한 상생의 연금개혁 방안 모색

- 이기일 제1차관, 연금개혁 전문가 간담회 주재 -

- 국회 공론화 결과 및 지속가능성·노후소득보장 조화 개혁 방안 논의-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4월 24일(수) 오후 4시, 달개비(서울 중구)에서 연금개혁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를 비롯해 앞으로의 개혁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간담회에는 지난 1월 구성된 「국민연금 미래개혁 자문단*」 전문가 6인이 참석하였으며, 소득보장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과 재정안정안(보험료율12%-소득대체율 40%)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다.

* 국민연금 미래개혁 자문단 : 제5차 종합운영계획 내 사회적 논의과제를 검토를 위해 거시경제·제도·재정 전문가 6인 및 정부위원 2인(복지부·기재부)으로 구성('24.1월)

이기일 제1차관은 “국회 공론화에서 시민대표단은 재정안정을 위해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소득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도 함께 올려야 한다는 데 많은 지지가 있었다” 라고 말하며, “공론화에서 많은 지지를 받은 안과 관련해, 재정안정이라는 당초의 연금개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가속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라고 덧붙였다.

제1차관은 이어서 “전문가들께서 바람직한 개혁 방향에 대해 가감 없이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라고 하면서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연금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붙임> 1. 연금개혁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요
2. 연금개혁 관련 전문가 간담회 제1차관 모두말씀

담당 부서	연금정책관 ~~실~~ 국민연금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창규 (044-202-3610)
		담당자	사무관	최진호 (044-202-3621)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붙임1**연금개혁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요**☐ 개 요

- (일시) '24. 4. 24.(수) 16:00 ~ 17:25
- (장소) 달개비 2층룸 (서울 중구 세종대로19길 16)
- (참석자) 보건복지부 제1차관, 연금정책관, 관련 민간 전문가 등

<민간 전문가 참석 명단>

성 명	소 속
김 수 완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석 재 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양 재 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오 건 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윤 선 중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이 강 구	KDI 연구위원

☐ 안 건

- 국회 공론화 결과 논의

☐ 회의 순서

시 간	주요내용	비 고
16:00~16:02 (2분)	개회 및 진행 안내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
16:02~16:05 (3분)	제1차관 모두말씀	보건복지부 제1차관
16:05~17:20 (75분)	안건 논의 : 국회 공론화 결과 논의	전문가 토의
17:20~17:25 (5분)	폐회	

보건복지부 제1차관 이기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국민연금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주신 전문가분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1988년 시작하여 이제 36년이 된 우리 국민연금에는 2,238만명이 가입하고 있고, 682만명이 수급을 받고 제합니다. 기금도 1,036조원에 달하는 세계 3대 연금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제 국민연금은 명실상부한 국민의 연금이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제도 도입 초기에는 보험료율 3%, 소득대체율 70%로 시작한 이후,

두 번의 연금개혁을 거치면서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OECD 평균 보험료율은 18.2%, 소득대체율은 42.3%인 데에 비해, 우리 국민연금은 관대한 제도 설계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어왔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의 제도설치로는 2041년에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에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만약 지금의 소득대체율 40%를 담보하려면 보험료로 소득의 19.8%를 내야 합니다.

지금의 보험료율은 소득대체율에 비해 거의 절반에 못 미치는 것입니다.

이에, 지금까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두고 연금개혁이 거론되었던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공론화에 참여해주신 500인의 시민대표단,
국회 공론화위원회, 참여 전문가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500인 시민대표단은 632시간의 숙의 과정을 통해
의미 있는 논의를 해주셨습니다.

모수개혁과 관련해, 다소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으로
재정안정을 위해 보험료를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소득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함께 올려야 한다는 데에
많은 지지가 있었습니다.

이 밖에, 구조개혁과 세대 형평성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주셨습니다.

공론화에서 많은 지지를 받은 안에 대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당초 재정안정을 위해 연금개혁을 논의한 것인데,
도리어 어려움이 가속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전문가들께서
미래에 희망을 주는 바람직한 개혁 방향에 대해
가감 없이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금개혁은 꼭 해야 합니다. 그리고 빠를수록 좋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연금개혁이 될 수 있도록
국회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금개혁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